
우리말과 표준어 사이

김태희 · 사계절출판사 편집장

책 만드는 사람은, 그것도 어린이 책을 만드는 사람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에 늘 예민하다. 어린이 책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교과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가 정하는 어문 규정을 잘 따라야 한다. 2011년 8월 31일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새 표준어 관련 규정은 일단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온다.

그동안 수많은 어린이 책에서 '짜장면'은 단골 소재로 쓰여 왔다. 책 제목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짜장면 불어요》, 《짜장, 짬뽕, 탕수육》, 《짜장면 더 주세요》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편집자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그냥 본문에 한 번 쓰여 나오고 마는 경우라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장면'으로 가거나 아니면 부자연스럽다는 예외를 적용해 '짜장면'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책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제목일 경우에는 문제가 살짝 심각해진다. 표지에 큼지막하게 들어가는 '짜장면'이라는 글자는 우리 모두에게는 자연스러우나 편집자에게는 표준어 규정을 어겼다는 찝찝함이 늘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사계절출판사에서 나온 '일과 사람 시리즈' 첫째 권 《짜장면 더 주세요》(2010년 4월 출간)의 경우엔 편집부에서 자장면으로 갈 것인지 짜장면으로 갈 것인지를 두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집 요리사들이 모두 '짜장면'이라 발음하고 메뉴판에도 다 '짜장면'으로 나와 있는데 현실에

어긋나게 ‘자장면’으로 하느냐, 그래도 어린이 책인데 어문 규정에 어긋나면 안 되지 않겠냐, 우리는 나이가 들어 짜장면이 익숙해서 그렇지 지금 아이들은 자장면으로 써야 한다고 배우지 않느냐, 이러다 아이들이 짜장면과 자장면을 헷갈려 하면 어쩌하나 등등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결국 ‘짜장면’으로 정하고 일러두기에서 ‘짜장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짜장, 짬뽕, 탕수육》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는데, 제목과 본문에서 ‘짜장’이 ‘자장’으로 바뀌어 들어갔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표준어는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를 말한다. 또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짜장면’이라 발음하면서도 ‘자장면’으로 써야 하는, 그야말로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오랜 시간 견디며 살아야 했다. 단지 ‘짜장면’뿐만이 아니다. ‘맨날’을 ‘만날’이라고 고치고 나면 그 문장 전체가 어찌나 어색해지는지. 한 때 대중의 사랑을 받은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 제목을 ‘사랑이 뭐기에’로 고쳐 읽어 보면 그 맛이 살지 않는다. ‘눈꼬리가 올라갔다.’는 문장을 ‘눈초리로’ 바꾸어 놓으면 갑자기 전체 맥락이 낯설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편집자로서는 이제 오랫동안 범법자의 심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다양하게 이 말들을 쓸 수가 있게 되어 기쁘다. 하지만 이번 복수 표준어 발표가 1988년 표준어 규정 고시 이후 처음이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표준어가 ‘표준어’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은 ‘표준어’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좀 더 자주, 기간을 정해 실제 언어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좋은 우리말들을 조사·발표하고, 표준어로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던 흥길동처럼 ‘짜장면’과 ‘맨날’을 ‘자장면’과 ‘만날’로 고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편집자들은 이제 당당히 ‘맨날’, ‘짜장면’을 외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39개의 표준어 인정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는다. 가령 ‘먹거리’의 경우, ‘-거리’는 명사 뒤에 붙거나 어미 ‘-을’ 뒤에 쓰여 활용하는 단어이다(이야깃거리, 볼거리, 마실 거리 등). 그래서 먹을거리가 원래 표준어인데 환경 오염으로 먹을 것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먹거리 문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인 것으로 기억한다. 말은 처음 생겨났을 때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굳이 틀린 말을 단지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싶다. 아니면 그 말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 말이며 어떻게 표준어로 굳어지게 되었는지 설명을 곁들여 주면 더 좋을 듯싶다. “여기는 ‘먹거리’가 많다”라는 문장을 보면 아직은 ‘먹을거리’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하지만 언중은 짧고 간결한 말들을 쓰기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읽거리’ 등도 탄생할지 모른다.

때로는 표준어 규정이 다양한 우리말 표현을 억압하기도 한다. 책이나 원고에서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표준어를 원래 표준어보다 평소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새초롬하다, 끄적거리다, 걸리적거리다, 야멸차다, 맨송맨송’ 등이 ‘새치름하다, 끼적거리다, 거치적거리다, 야멸치다, 맨송맨송’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현재 표준어와 추가 표준어를 구별해 보라고 하면 추가 표준어를 원래 표준어로 알고, 현재 표준어를 새로 추가된 말로 오해할 사람이 더 많을 듯싶다. 영어가 세계 공통어인 글로벌 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말’이 얼마나 대단한 언어인지 새롭게 느낄 때가 많다. 영어를 공용어로 삼는 나라도 생겨나는 마당에 우리말 어휘를 좀 더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우리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벽초 홍명희의 《임격정》만 봐도 당시 언중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를 구사했는지 엿볼 수 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에는 한계가 있어, 이들이 가진 어휘로 표현 못하는 말들도 무수히 많다. 이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의 표준말에는 어설픈 콩글리시나 외계어가 다수

등장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현대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서울말에는 없지만 여전히 두루 쓰이는 우리 고유의 좋은 말, 좋은 표현들은 표준어로 삼아 주었으면 좋겠다.

비록 국어학자는 아니지만 편집자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말의 변화나 유행에 자연스레 민감해진다. 최근 들어 느끼는 혼란스러움을 몇 가지 들어 보면 언제부터 우리말에 '사이시옷'이 그렇게 많이 쓰였을까 하는 것이다. 예전엔 '등곶길' '하곶길'엔 사이시옷이 없었다. 하지만 여기저기 마구 사이시옷을 넣다 보니 글씨 모양은 모양대로 안 예쁘고, 간결하지도 않고, 어디엔 넣고 어디엔 빼야 하는지 점점 구분이 모호해진다. 또 "내가 어머니 '배속'에 있었을 때" 같은 문장을 이제는 '배 속'으로 써야 한다.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한 나라 말을 쓰는 언중들 간의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사이시옷'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말에 뾰족하게 돌아났는지, 그리고 이런 사이시옷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애정남' 같은 존재가 속 시원하게 정해 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편집자로서 우주의 신비보다 더 신비롭게 다가오는 '띄어쓰기' 이야기를 하고 싶다. 편집자들은 농담처럼 '띄어쓰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다. 시나 동화, 소설, 학술 논문 등에 적용하는 띄어쓰기가 다르고, 같은 조합이라도 어떤 건 띄고 어떤 것은 붙인다(불거리, 먹을거리, 마실 거리 등). 거기에 더해 '신나는'이 갑자기 어느 순간 '신 나는'으로 변하고, '(줍쌀)만한'이 '(줍쌀)만 한'으로 바뀌면 그 어색함에 전혀 신 나지도, 크기가 줍쌀만 하게도 느껴지지 않는다. 편집자가 우리말을 쓰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이렇게 큰데 일반 사람들은 말해 무엇하리.

말은 계속 변한다. 표준어든, 사이시옷이든, 띄어쓰기든 모든 것이 다 조금씩 계속 바뀌어 나갈 것이다. 처음 이런저런 규정을 정할 때, 문법도 중요하고 원칙도 중요하겠지만 실생활에서 대다수 언중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눈여겨보고 귀 기울여 들어 좀 더 합리적으로 처리하면 좋겠다.